**로버트 바노이, 대선지자, 강의 19**

**이사야서 54장**

F. 고난 받는 종의 사역의 결과(사 54:1-56:8)
 다시 이사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사야 53장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인을 다루는 일련의 구절 중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종의 말씀의 절정입니다. 개요를 보면 이사야 40-66장 아래에 하위 항목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위 항목 D.는 "주님의 종 주제"였고, 그것이 우리가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D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E로 이동합니다. 즉, "고통 받는 종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56장 8절까지입니다. 나는 54:1-56:8이 앞선 내용과의 관계, 특히 이사야 53장에 있는 종의 절정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실제로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종의 굴욕과 고통을 묘사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죄악을 진 사람들을 속량하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해집니다.

개요: 이사야 54-56장

53년 이상으로 넘어가면 종의 일의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54장 1-17절이라는 세 개의 하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하나의 단위로서 54장입니다. 54장 1-17절은 종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확장되고 축복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55:1-56:2. 제 생각엔 챕터 구분이 55:13과 56:1 사이보다 56:2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5:1-56:2은 개인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구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56:3-8은 복음의 초대가 어떤 인종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54-56장에 대한 일반 논평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인 이사야 54:1-17을 보기 전에 이 부분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하나님 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주님에게서 돌아섰지만 경건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일부를 형성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이 장들이 주로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적 배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인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 복수형으로 “여호와의 종들”로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특정 개인에 대해 “종”이 사용된 종 주제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굴욕과 고난을 통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십니다. 그러나 이 장들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로 불립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종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분이 이루신 일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 자료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 즉 주님의 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4:1-17 그들의 의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기 첫 번째 부분인 이사야 5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17절을 볼 때, 마지막 절의 마지막 절반은 처음부터 바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별도의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 하반절은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나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약속은 주님의 종들에게 속합니다. 즉, 주님의 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길을 잃은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으므로 그 종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함을 얻으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의가 나에게서 나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 이것이 54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나느니라.”

이사야 54:1-17의 개요

제 생각에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기 전에 마지막 구절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의 나머지 부분에 도달하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3절: “여호와의 종들은 크게 기뻐할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큰 증가가 있을 것임이라.” 4-10절: “하나님이 장래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니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장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4-10절에서 당신은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11-17절: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함.”

이사야 54:1-3 여호와의 종들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 그런 제목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여호와의 종들은 크게 기뻐할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큰 증가가 임하게 됨이라.” “'아이를 낳지 못하며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하라.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소리 높여 외칠지어다 이는 황폐한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아내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네 줄을 길게 하며 네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오른쪽에서나 왼쪽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손은 열방을 상속받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 것이다.'”
 1절에는 첫 번째 질문이 제기됩니다. “오, 잉태하지 못하며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그리고 마지막 문구는 “혼인한 아내의 자녀보다 황폐한 자의 자녀가 많음이라”입니다. 불임 여인은 누구인가? 결혼한 아내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이고, 결혼한 아내는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이라고 주장 합니다 .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능할 것 같았던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더 나은 시절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불임자”를 이방인으로 보고, 결혼한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구절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었으되 잉태하지 못하며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라. 해산하지 못한 자여, 일어나 부르짖으라. 이는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자녀가 많음이니라.'” 이사야 54:1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말하는 맥락에서 볼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자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자신의 행위 등에서 율법적인 준수를 통해 구원을 구하는 자들과 대조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메마른 자들과 황폐한 자들을 이방 나라들을 대표하며, 결혼한 아내는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이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황폐한 자의 자녀가 결혼한 아내의 자녀보다 많음이로다.” 이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종의 사역의 결과를 가리킨다. 이스라엘보다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아올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먼 나라들과 황폐한 도시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중심지가 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네 줄을 길게 하며 네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는 좌우로 갈라질 것이다. 네 자손이 열방을 상속하고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이 살게 하리라.”
 윌리엄 캐리는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촉구하면서 2절을 자신의 본문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펴라” 등등.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정당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장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이 없는 문맥에서 한 구절을 꺼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일, 즉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전파되도록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종들은 큰 증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4-10

절 미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 4-10절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입니다. 이사야는 4절의 시작 부분에서 결혼한 여인, 즉 이스라엘이 주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한동안 버림받았지만 결국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버림받고 과부가 된 것처럼 보이던 그 때의 치욕도 그들의 앞날의 영광 가운데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은 네가 어렸을 때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당신을 만드신 분이 당신의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사 버림을 받아 심령으로 통곡하는 여인, 어려서부터 버림받은 아내 같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잠시 동안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큰 자비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나는 약간의 분노로 잠시 동안 당신에게서 내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나에게 노아의 물과 같으니 내가 맹세하기를 노아의 물이 다시는 땅 위에 범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진노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옮겨지리라. 그러나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때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복되어 그때 에 과부의 치욕이 잊혀지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절인 10절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영속성에 대한 강력한 진술입니다.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속사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옛 언약의 세로 좌표에서 새 언약의 세로 좌표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에서 주의 만찬으로 옮겨가지만, 이들 메시아 교회 중 일부는 옛 언약의 연대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진행 과정과 그 계획이 진행되는 다양한 시기와 단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옛날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의 동기가 불쾌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대인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수단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봉사 활동 기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 중 일부가 궁금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갈라디아서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4:11-17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성 계속합시다. 54장 11-17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입니다. 11절에 **“**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내가 채색으로 네 돌을 놓으며 남보석으로 네 기초를 쌓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노로 네 창문을 만들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짓고 아름다운 돌로 네 모든 지경을 지으리라.”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확장을 장막의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확장입니다. 11절과 12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성이 다른 인물, 즉 여러 종류의 보석으로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사용하는 비유 와 매우 유사하며,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권속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석으로 함께 지어진 건물이라는 이사야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13 절을 보십시오 : “네 모든 자녀는 주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다음 세대의 특권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여 그들의 마음을 밝히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여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올 일들.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가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임이니라.” 이제 확실히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구약성서 자체의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녀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네 자녀에게는 큰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의로 견고히 서리라.”

이사야 54:14-17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14-17절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 말합니다. “너는 공의로 굳게 서고 압제에서 멀리 떠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멀리할 것이다. 그것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보라, 그들이 반드시 모일 것이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모여 너를 대적하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보라, 불에 숯불을 불어서 자기 일에 쓸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를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는 멸망시키려고 낭비자를 창조하였다.”
 14-17절의 주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리라”입니다. 포로 생활에 관해 이사야가 언급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포로 생활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 입니다 . 그것은 그의 백성을 위한 그의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사탄의 선동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공격은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16절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악한 세력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에 숯불을 불어 자기 일에 쓸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나니 그리고 나는 멸망시키려고 낭비자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적들조차도 그분의 창조의 일부이며 그분이 허락하시는 한도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마지막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혀는 네가 정죄할 것이요.” 그것은 같은 개념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장 전체를 요약하는 마지막 진술은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니라"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가,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과 보호.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니라”, 즉 여호와의 참된 종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좋아요, 9시 5분입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맨디 윌슨(Mandie Wilson)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Carly Geiman이 대략적으로 편집함
 편집자: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
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재연함